

에 관한 일반적 법칙을 정립하려고 노력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언어도 단세포에서 유기체가 형성되는 것과 같이 가장 단순한 어형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언어에는 동사, 명사, 어미변화는 물론이며 문법형태를 표시하는 어떤 특별한 음성적 표현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다만 명사, 동사 등의 기능을 가진 언어세포로서 어근이 존재했을 뿐이다. 그는 하나의 단순한 어근으로 구성된 무수한 동일형태의 원시어 *Ursprache*가 지구상에 존재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원시어는 인간의 상이한 자연적인 생활조건에 따라 발화된 음성자료나 표현된 내용이 서로 다르게 발전했다. 그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타민족의 언어보다 인접한 타민족의 언어가 자국어와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315).

Schleicher의 자연주의철학적 언어관은 1) 언어진화의 2 단계설, 2) 수형계통설, 3) 유형론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다음에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언어진화의 2 단계설

Schleicher의 언어진화론은 자연과학은 물론이지만 Hegel의 진화가설에 기초한다. Hegel의 영향은 특히 Schleicher의 언어발전을 역사적 과정으로 취급하는 언어진화의 2 단계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³⁷⁾ 인간의 정신은 유사이전에 이미 발전했으며 인간의 언어도 그것과 같이 동일하게 발전했다는 Hegel의 가설을 토대로 Schleicher(1848, I, 2)는 인간의 정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언어는 인간의 정신과 상이한 발전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유기체법칙에 따르고 언어형성과 역사형성은 상호 배제하는 인간의 정신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Hegel의 진화가설에 따라 인구의 발전과정을 유사이전과 유사시대로 구분하고 산스크리트, 희랍어, 라틴어의 고전시대를 인구의 구조상 가장 발전했던 시기로 보았다.³⁸⁾

Schleicher에 의하면 유사이전 시대에 모든 민족정신은 물론 인간의 정신은 “소외된 정신”으로서 언어 속에 내재하고 있었으며 이 시기에 정신이 음성과 결합하여 언어의 창조적 과정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이 “소외 *Entfremdung*”로부터 복귀된 후부터

37) 언어가 유사이전에 형성되고 유사시대부터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Hegel의 주장은 역사-비교언어학자들에게 언어연구의 목적은 물론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공했다

38) Hegel 철학의 체계에서와 같이 Schleicher에서도 정신 *Geist* (Hegel의 용어로는 절대적 관념 *absolute Idee* 또는 절대적 정신 *absoluter Geist*)은 발전의 근원으로 간주된다. 특히 자연계에서 동식물의 생성과 발전은 이러한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Hegel에 의하면 자연은 “소외된 정신 *sich entfremdeter Geist*”이다. 자연 속에 정신이 깃들여 있는 동안 자연은 완벽한 창조력으로 충만되고 이 시기에 자연계의 삼라만상은 엄청난 발전을 한다. 그러나 창조적인 “소외된 정신”이 다시 정신 그 자체 “für sich”가 되면 자연은 새로운 것을 창조할 능력을 상실하고 기존의 형태가 점진적으로 파괴되고 멸망하기 시작한다(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317)

언어창조는 종식되었다. 유사시대 이후로 음성은 소모되고 형태의 다양성은 퇴색되고 단순화의 경향이 나타났다 예컨대 이 시기에 여러 종류의 동화현상, 음의 감소현상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창조적 정신이 언어에서 이탈한 후에 죽은 짐승이나 식물에 화학적 법칙이 적용되듯이 언어유기체에도 물리적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즉 언어는 퇴화하기 시작했다(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317). 그러나 그의 철학적 진화가설은 Humboldt의 창조적이고 진화유형론적 개념에 비하면 일보 후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역사-비교언어학적 방법에 의해서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못했다.

언어변화의 목적론적 의의는 언어의 기원문제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변화에 관해서 두 가설이 있는데 그 하나는 Schlegel, Bopp, Grimm, 특히 Schleicher의 언어퇴보설이고 다른 하나는 Humboldt와 그 후계자들, Scherer 등의 언어진보설이다. 그러나 이 두 이론은 언어를 독립적인 유기체로 가정하고 언어가 그 자체의 내재적 법칙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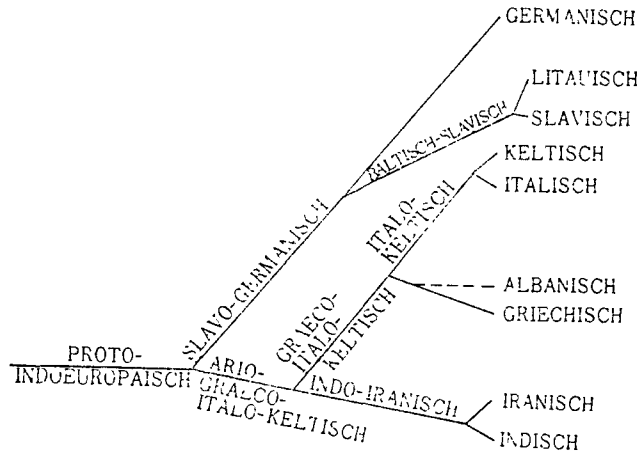
기능상으로 완벽한 유기체로서 언어가 역사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정확한 시기 즉 유사와 선사시대의 경계선을 전수된 문헌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현존하는 모든 인구어에서 도출된 음운법칙의 도움으로 변화로 인해서 전혀 손상되지 않은 완벽한 공통조어를 재구할 수 있다는 Schleicher의 주장도 이론적으로는 정당하다.

Schlegel, Bopp, Grimm, Schleicher 등 낭만주의자들과는 달리 Scherer(1868)는 언어가 선사시대에 발전했고 유사시대 이후로 쇠퇴한다는 언어진화의 2 단계설을 부인하고 언어는 퇴보하지 않고 발전하며 언어변화 역시 유사시대와 마찬가지로 선사시대에서도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Scherer의 언어변화에 관한 이론은 지질학적 발전은 선사시대나 유사시대에서 동일하고 불변한다는 Lyell의 가설에서 차용된 것이다. Scherer는 Lyell의 진화개념을 언어학에 도입했기 때문에 진화에 관한 한 지질학과 언어학의 경우가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현재의 상태는 본질적으로 선사시대의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요약컨대 현존하는 언어요소를 바탕으로 과거 변화 이전의 언어요소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Scherer의 주장은 초기 역사-비교언어학의 낭만주의적 언어관을 탈피하고 실증주의적 언어관을 정립하려는 젊은이문법학파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Jankowsky 1972, 110f.). 젊은이문법학파 이후부터는 대체로 종교적, 역사철학적, 민족적 동기에서 유발되고 언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 언어연구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2) 수형계통설

Schleicher의 자연과학적 언어이론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것은 공통조어의 재구와 생물학상의 수형계통모델을 근거로한 수형계통설이다. 수형계통설은 인구어 역사-비교언어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고 현재에도 역사-비교언어학에서 그 영향이 명백히 감지

된다³⁹ Schleicher(1861-62, 9)는 공통조어에서 파생된 자매어들이 하나의 계통을 형성한다는 가정하에 인구어의 발전현상을 인간이나 동물의 계보도와 유사하게 도식화했다(ibid. 7)⁴⁰



<도식>

위의 도식과 같은 인구어 특유의 역사적 발전양상에서 Schleicher는 동쪽에 가까울수록 언어는 더 많은 고품의 어투를 보존하며 반대로 서쪽에 가까울수록 언어는 보다 더 많은 새로운 어형을 활용하고 구형을 적게 보유한다는 사실을 확증했다. 따라서 그의 이론에 따르면 슬라브족과 게르만족이 가장 먼저 서쪽으로 이주했으며 인구어 민족중 가장 동쪽에 거주하는 인도인의 언어인 산스크리트가 공통조어와 가장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공통조어 재구에 큰 역할을 했다.

Schleicher의 수형계통설은 원시적 형태의 동물과 식물의 진화를 표시하는 Darwin의 수형도와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면밀히 관찰해 보면 양자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Darwin은 살아있는 생물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것의 계보를 확인했고 적어도 화석의 도움으로 확인된 발전고리를 참조하여 존재하지 않는 중간구성원을 결정했다. 그 반면에 Schleicher는 문헌 이전의 언어단계를 가설적 방법으로 재구했다. 이 외에도 Darwin의 수형도는 생물체는 해부 및 생물학적 의미에서 조직형태가 하등에서 고등상태로 진화함을 암시한다. 그의 이론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또한 가치평가를 포함하지

39) Lottner 등 Schleicher의 제자들이 수형계통설을 한층 더 명확히 규명하고 발전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40) Lane(1959, 315)은 Schleicher의 수형계통도는 본질적으로 비교방법을 적용해서 재구된 어족의 단순한 도식이지만 인구어의 계통적 친족관계를 간편하게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않는다. 그러나 Schleicher는 인구어가 개별어로 분기된 이래로 쇠퇴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한편 Darwin은 종의 변이는 적자생존의 원칙에 기인한다고 했지만 Schleicher는 언어는 언어내적 변화법칙에 따라 변화한다고 믿었다. 그들의 수형도를 비교해 보면 Schleicher가 Darwin의 영향만큼 적어도 Hegel의 발전이론과 변증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Boretzky 1977, 32f.)⁴¹⁾

Schleicher의 수형계통설의 특징은 언어상호간 시, 공간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발전양상이 잘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 수형계통설은 언어가 형태상으로 비슷하면 비슷할 수록 더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다는 가설에 근거를 두는데 단순하고 간략히 이해되므로 다른 이론이나 용어활용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Pulgram(1953, 67)은 Schleicher의 수형도는 그 이전에 이미 알려진 인구어 친족관계 및 비교언어학의 연구방법을 도식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언어가 인접어와 완전히 고립되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결점에도 불구하고 수형도의 학문적 가치는 현재에도 유효하며 비교언어학의 초기에는 인구어의 발전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Gleason, Jr.(1972, 12)는 그 이유를 공통조어를 수형도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언어요소만을 근간으로 하여 재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물론 수형계통설도 많은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어족의 모델에서와 같이 언어가 생물과 동일한 유기체로 취급되는데 언어는 동식물과 같이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다. 언어는 인간의 다른 모든 행동양식과 같이 상호간 약속으로서 언어변화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이지 언어 그 자체에 의한 것은 아니다. 어떤 언어가 사어가 되었다는 것 역시 그 언어가 사멸한 것이 아니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일 뿐이다. 언어는 나무가지와 같이 어느 시기에 어느 지점에서 급격하게 분기되지 않는다. 언어의 분기과정은 방언의 하위부문에서 시작되어 두 개 이상의 새로운 방언이 생성될 때까지 오랜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단계구분은 자의적이다. 또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화자간 언어접촉이 계속되는 한 상이한 방언간에서만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 사이에서도 상호간 영향관계는 지속된다. 비록 둘 다 동일한 수형도로 표시될 수 있지만 어족과 식물간의 발전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Robins 1967, 179).

수형계통설을 통해서 인구어 모든 개별어에 나타나는 언어사실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사실들은 Schleicher의 수형계통설과 직접적으로 위배된다. Schmidt(1872)는 인구어 개별어간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특정의 언어사실이 인구

41) Maher(1966)는 Schleicher가 Darwin 이전 생물의 진화에 관한 목적론적 관점에서 그의 이론을 전개했으며 Schleicher가 *The Origin of Species*의 독일어 번역본을 읽었지만 Darwin의 이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어 다른 집단의 개별어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또는 상이하게 공유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Schleicher의 공통조어는 학문상의 허구이며 실제로 단일체가 아니고 처음부터 여러 이질적인 방언으로 구성되었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이러한 복합체의 모든 요소가 어느 일정한 시기에 존재했던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교언어학자들은 개별적인 어형이나 단어를 재구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통일적인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려고 시도해서는 안된다. Schmidt(1872, 27ff.)의 주장에 따르면 인구어의 발전은 하나의 계통에서 분기되는 수형도로 이해될 수 없으며 그 자체가 완결되었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없는 상이한 부분의 환으로 즉 파형설로 설명되어야 한다. 그의 파형설에 의하면 언어변화는 언어접촉이 계속되는 동안 어느 한 방언에서 다른 방언으로 또는 어느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전파된다.⁴²⁾

두 이론은 원래 인구어에만 적용되었지만 점차로 언어발전의 일반적 모델로 인식되었다.⁴³⁾ 그러나 파형설 역시 하나의 이론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구어 발전과정에 관한 정확한 검증을 거쳐야함은 물론이고 실제로 인구어의 구체적 발전양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언어공동체내에 새로운 방언의 형성요인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방언을 다른 언어로 만들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Schleicher의 이론이 한층 더 신빙성을 갖는다. 예컨대 여러 방언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분산되어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다면 언어분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종족들이 계속적으로 인접해서 정주한다면 언어분기 현상이 나타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두 이론도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 즉 언어경계선을 형성하는 정치적 요인이나 의사소통의 방향을 규정하는 요인 등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미 언급했듯이 두 이론은 전혀 다른 사태관계를 설명하려고 시도했으며⁴⁴⁾ 어떤 측면에서는 수형계통설이 인구어의 분기현상을 설명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파형설은 언어공동체내에서 방언이 분기되는 과정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지만 왜 어느 지점에서 언어변화가 정지되었는지에 관해서 해답을 줄 수는 없다. 언어분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구분, 민족이동, 지리적 요인, 정치적 또는 종교적 행정구역의 분할, 인간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형성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의 논증에서 인구어 개별어화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수정만 가한다면

42) 파형설은 특히 신언어학 즉 지역언어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43) 수형계통설과 파형설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Pedersen(1965, 311-18)을 참조하여야.

44) Leskien은 *Die Deklination im Slavisch-Litauischen und Germanischen*(1876)의 서문에서 원래 분리될 수 없는 중간연결어 *Zwischenverbindung*가 존재했고 그 후에 언어분기 현상이 나타났다고 인정할 수만 있다면 수형계통설과 파형설간에 원칙상의 모순성이 없고 두 이론이 인구어의 역사적 발달과정의 서로 다른 면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 두 이론을 조화시켜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수형계통설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어느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이 일반적으로 균등하게 방언으로 분기되지 않고 동일한 특성을 무작위로 자매어에 분배하는 까닭을 설명하는 데는 오히려 파형설이 더 적합하다. 여러 다른 언어변화가 분기 이전에 어느 한 동일한 장소에서부터 전파되지 않고 동일한 거리와 동일한 방향으로도 진행되지 않는다. 언어분기가 필연적으로 새로운 방언지역을 형성하지만 연속적으로 변경되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민족은 구방언의 경계선에서 무조건 분리되지 않는다

언어의 동질성은 친족관계에 의해서만 형성된다는 종래의 학설과는 반대로 Trubetzkoy (1939, 81-89)는 언어의 수렴설을 주창했다 그의 이론 역시 인구어에 국한되었지만 점차로 일반 언어이론으로 발전되었다 19세기 말기에 이미 언어학자들은 친족관계에 있지 않은 언어가 지속적인 상호교류 및 영향을 통해서 구조상 서로 유사한 언어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족관계에 있는 언어보다 더 밀접한 관계와 공통성을 지닐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친족관계가 없는 언어 사이에 구조상의 유사성 정도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Trubetzkoy는 이 언어들간의 관계를 언어연합 Sprachbund이라고 불렀다.

3) 유형론

분류기준이 서로 다른 유형론적 분류와 계통론적 분류는 논리적으로 상호간 독립적이다. 물론 계통상으로 친족관계가 있는 어족은 어느 특정의 시기에 어느 정도 유형상의 동질성을 분명히 나타내지만 유형적 유사성 때문에 계통적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다 (Robins 1973, 36f.). 유형론적 언어분류는 계통론적 분류와는 대조적으로 언어현상을 고립시켜 고찰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언어현상만을 추출하고 이러한 현상의 유무에 따라 언어를 분류한다 45) 초기 인구어 비교언어학자들은 단어를 언어의 기본단위로 취급했기 때문에 형태론상의 관점에서 유형론적 접근을 시도했다. 언어의 유형적 발전에 관한 개념은 이미 Port-Royal 문법의 저자와 Beauzée 등에 의해서 구체화 되었고 Schlegel(1808)이 유형론을 체계화했다고 볼 수 있다.

Schlegel은 언어를 유형상으로 고립어, 교착어와 굴절어로 분류했고 그중 가장 발전된 유형은 굴절어(유기체적 언어)라고 했다 그에 의하면 굴절어는 그 자체내에 물질과 정신의 통일체를 이루며 그 구조의 유기체적 완결성은 형태와 내용의 일치에서도 나타난다. 인구어가 여기에 속하는데 특히 산스크리트의 구조는 완벽하다. 46) 굴절어 어형의 유기체적 발전은 교착어의 원칙과는 대조적으로 내적인(굴절을 통해서) 기계적 상호연관성에 의

45) 언어와 같은 매우 복잡다양한 현상을 유형에 따라 완벽하게 분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유형론은 언어의 층위에 따라 음운론적 유형론, 형태론적 유형론, 통사적 유형론으로 대별된다 그러나 언어학자들은 대체로 형태론적 유형론을 가장 중시한다(Goyvaerts 1975, 16)

46) Schlegel은 산스크리트를 인구어의 공통조어로 간주했다

해서 이룩된다. 그 특성은 어형의 다양성에서는 물론이지만 언표의 견고성에서도 나타난다. 그 반면에 교착어는 경우에 따라서 결합되기도 하고 분리될 수 있는 어근과 접사의 축적에 불과하다.⁴⁷⁾

중국어와 같이 어근만이 존재하고 굴절어미가 없는 고립어를 분석적 언어라고도 부르며 교착어를 접사어, 굴절어를 종합적 언어라고도 한다. Schlegel은 굴절어를 다시 분석적 굴절어와 종합적 굴절어로 양분했다. 전자의 경우에는 명사 앞에 관사가, 동사 앞에 대명사가 오며 결합된 어미의 기능이 전치사로 보충되는데 로맨스어가 여기에 속한다. 후자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데 산스크리트, 회랍어와 라틴어가 이에 해당된다 (Goyvaerts 1975, 17f.).⁴⁸⁾

Bopp는 Schlegel의 언어철학적 사상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의 인구어 발전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Schlegel의 이론에 의하면 인구어는 어떤 의미에서 이미 가장 발전되고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본래의 조화된 형태가 점차적으로 파괴되어 간다고 보아야 한다. Bopp도 인구어의 점진적인 퇴화현상에 관해서 언급은 했지만 결합적 기제의 형성을 통해서 새로운 언어적 유기체가 생성되어 이러한 퇴보적 기제를 대체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언어적 유기체는 어족에 특유한 확정된 법칙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이러한 유기체의 형태가 과학적 언어연구의 주요 관심사다 (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244).

Bopp는 고대 인도의 전통, 특히 Pāṇini의 영향을 받아 어근설을 중시했는데 이것은 그의 과학적 언어연구의 토대를 이룬다 (Bopp 1833 - 52). 모든 단어(독일어의 경우)가 일음절(어근)에서 생성되었다는 이론은 18세기 Fulda와 Adelung에 의해서 제기되었는데 Bopp는 이러한 어근설에 의거해서 언어를 다음과 같이 세 유형으로 분류했다 (ibid, 241)

1) 순수어근이 결합된 언어 → 이러한 유형의 언어에는 연결능력이 있는 어근이 없기 때문에 유기체적 특성과 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중국어).

2) 일음절 어근으로 구성된 언어 → 인구어가 여기에 속하는데 연결의 기능을 가진 어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기적이고 문법을 소유한다. 이 유형에서 조어법의 기본원칙은 동사와 대명사 어근의 결합에 있다

3) 이음절의 동사어근으로 성립된 언어 → 여기에서는 어근을 구성하고 기본의미를 내포하는 세 개의 자음이 한음절에 의무적으로 나타난다. 셈어가 여기에 속하는데 그 문법

47) F. Schlegel(1808, 45-50)은 원래 언어유형을 굴절어와 고립어로 양분했다 그러나 그의 형 A. Schlegel이 굴절어미가 없는 고립어를 다시 중국어와 같이 문법적 구조가 없는 언어와 터키어와 같이 접사를 첨가해서 부차적 의미를 표현하는 언어로 분류했으며 후에 전자는 고립어로, 후자는 교착어로 지칭되었다

48) Schlegel은 그 전 시대의 언어와 그 다음 시대의 언어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러한 하위구분을 했다

적 형태는 인구어와 같이 연결을 통해서가 아니고 어근의 내적 변화에 의해서 형성된다.

언어연구를 통해서 자연 그리고 인간정신과 이성의 법칙을 규명하려는 Bopp의 노력에서 Schlegel과 Humboldt의 언어철학적 성향뿐만 아니라 보편문법과의 연관성도 찾아 볼 수 있다.

Humboldt는 처음에(1822) 역사적 관점에서 언어유형을 고립어 → 교착어 → 굴절어의 순으로 설명했으나 후에(1836) 유형론을 공식적으로 기술해야하며 차등을 두어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유형론상의 양극은 순수한 고립어와 굴절어이며 그 사이에 교착어가 위치한다. 그는 모든 언어구조의 가치와 발전가능성을 인정했지만 굴절어를 가장 완벽한 언어유형으로 평가했다 그의 중국어에 관한 관심은 특별했으며 그도 그 당시 대다수의 언어학자들과 같이 형식적 문법요소가 결여된 특성 때문에 중국어가 언어로서 고도의 우수성을 가졌고 또한 정신적 능력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믿었다. 언어의 형성기에 굴절어미가 생성, 발전하고 그 후에 영어에서와 같이 점차적으로 쇠퇴하여 분석적 언어구조로 변화한다. 그러나 중국어는 확고한 언어상의 보수성 때문에 초기의 고립적 언어구조를 그대로 보존했으며 산스크리트는 고립어에서 굴절어로 발전했으므로 굴절어미를 가져보지 못했던 중국어와 전혀 다른 문법구조를 가진다(Robins 1973, 177).⁴⁹⁾

Humboldt의 유형론은 본질적으로 Schlegel의 이론을 수정, 보완하고 기존의 세 유형에 또 하나의 새로운 유형 즉 포함어를 첨가한 것이다. Humboldt는 아메리카 인디언어나 에스키모어를 포함어로 분류했는데 이러한 유형에서는 동사, 주어, 목적어, 수식어 등이 융합되어 하나의 단어로 나타난다. Schlegel 등 19세기의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포함어의 유형을 단순히 접사첨가의 발전된 단계로 취급하고 Humboldt의 이론을 부정했다. 최근에 Hjelmlev(1966, 128f.) 역시 Humboldt의 유형론적 분류를 피상적이고 불충분하다고 비판하고 언어의 형식적 범주에 바탕을 둔 완벽한 유형론을 정립하는 것이 언어학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유형론은 언어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고 언어법칙을 확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Humboldt의 언어유형에 관한 개념이 Schlegel의 모델보다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Humboldt의 유형론적 해석 역시 그가 제시한 음운론적, 형태-통사론적 기준과 관련된 언어외적 형태와 내적 형태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모순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언어의 유형론적 개념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언어학자는 Schleicher인데⁵⁰⁾ 그는 자연유기

49) 다수의 중국어 학자들은 중국어가 굴절어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후에 굴절어미가 상실되어 현재의 고립어가 되었다고 확신한다(Karlgren 1920 205-35) 그 반면에 인구어는 원래 고립어였다는 사실이 거의 확정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50) Delbrück(1880, 43)은 Schleicher의 자연주의철학적 언어관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Bopp가 유기체라는 표현을 이미 언어에 적용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표현으로써 다만 언어가 자

체와 언어의 진화를 동일시하고 언어의 유형도 가장 간단한 구조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한다고 믿었다. 생물계에서와 같이 공식적으로 인접해서 나란히 나타나는 언어유형도 통시적으로는 연속해서 차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언어유형의 체계적 고찰을 통해서 언어가 진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1865, 10) 그는 Humboldt의 네 유형을 부인하고 Schlegel식의 세 유형을 인정했으며 언어유형의 발전단계를 정적인 차원에서 동적인 차원 즉 일음절어 → 교착어 → 굴절어로 간주했다.⁵¹⁾ Schleicher에 의하면 이 세 유형은 유사이전에 이미 형성되었고 유사시대에는 새로운 유형은 형성되지 않았으며 다만 이미 존재했던 유형의 발전과 소멸이 있었을 뿐이다

Schleicher의 언어유형 분류의 기준은 의미와 문법관계의 표현방법이다. 그는 의미를 음성으로 표현된 표상과 개념으로 정의했는데 그에 의하면 의미는 어근에, 문법관계는 접사에 내포되어 있으며 의미와 문법관계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형성한다. 다시 말해서 언어는 의미와 문법관계의 표현방식인데 의미는 어근에, 문법관계는 문법관계를 형성하는 음절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언어에는 세 유형만이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고립어에서와 같이 의미만이 표시되거나 교착어의 경우처럼 문법관계를 형성하는 음성적 요소가 의미를 나타내는 음성적 요소에 첨가되든지 의미나 문법관계를 표시하는 음성적 요소가 내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통일체를 형성한 굴절어의 세 언어유형이 존재할 뿐이다 그가 네번째 유형의 존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이유는 문법관계를 표시하는 음성적 요인만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Schleicher는 언어를 다음과 같이 세 유형으로 분류했다(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316)

1) 일음절어(고립어) → 일음절어는 형식적으로 의미만을 표현하며 문법관계를 표현하는 음성적 표현방법이 없으므로 단어는 결정과 비교될 수 있는 분리할 수 없는 통일체를 형성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언어에는 형태론적 범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법관계는 일반적으로 어순에 의해서 표시된다(중국어, 버마어 등).

2) 교착어 → 교착어의 의미와 문법관계는 음성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즉 문법관계를 표시하는 음성적 요인이 의미를 나타내는 음성적 요인에 첨가되나 그것들이 분리될 수 없

의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려고 했을 뿐이다 언어는 본질이 아니며 본질의 표현일 뿐이기 때문에 언어학에 자연과학적 방법을 원용한다면 언어는 유기체가 아니고 기능이다 Delbruck은 언어학을 자연과학과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언어는 인간 사회에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언어학을 자연과학에 귀속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과학에 통용되는 하나의 동일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과학도 연구대상에 따라 수학적, 실험적 또는 발생적 방법론이 적용된다

51) Schleicher(1848-50, Bd. II, 10)는 언어유형의 발전단계가 자연계의 결정 → 식물 → 동물의 단계에 상응한다고 주장했다

는 통일체를 형성하지 않고 다시 쉽게 분리된다. 여기에서 단어는 식물을 연상케 한다(몽고어, 터키어, 헝가리어, 드라비드어, 핀란드어, 티벳어 등).

3) 굴절어 → 여기에서 문법관계는 물론이고 의미도 함께 표현하는 단어는 그 자체가 완결된 전체를 이룬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서 단어는 동물의 유기체와 비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굴절어를 언어발전의 최고단계로 간주했다(고대 인구어, 셈어)

고립어에서는 문법관계를 나타내는 음성적 표현이 없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어근이 단어가 된다. 문법관계는 일반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에 의해서 표시되는데 이러한 어근은 확정된 구체적 개념보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문법관계를 표현한다. 그 반면에 교착어에서는 문법관계 표시어가 어근에 첨가되는데 이 경우 문법관계 표시어는 일반적으로 본래의 완전한 어근형태를 상실한다. 이와 같이 확고한 단어로의 융합과 문법관계를 표시하는 음성적 표현의 생략을 통해서 의미표시어에 문법관계 표시어를 첨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첨가를 토대로 수 많은 종류의 결합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나 굴절어에서는 어근 그 자체가 문법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문법관계는 상징적으로 표시된다(Arens 1955, 231-34)

Schleicher의 유형론에서도 자연과학적 경향뿐만 아니라 헤겔철학의 영향이 나타난다. 물론 자연과학적 개념을 언어학에 적용하는 데는 오류도 범했지만 언어를 자연유기체에 비유함으로써 언어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를 촉진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Schleicher는 고립, 교착과 굴절의 원칙은 완성단계를 지향할 뿐만 아니라 불완전에서 완벽으로 진화하는 계통적 발전론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이러한 결론은 실제적 언어고찰에서보다는 진화개념에서 추론되었다. 진화와 형식의 관계 즉 의미표시와 문법관계 표시는 언어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그는 표시방법의 모든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중 어느 것이 언어행위에서 실제로 실현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Schlegel의 굴절어 분류방법을 적용하여 추가적으로 교착어를 융합의 상대적 정도를 기준으로 융합관계가 밀접하면 종합적 교착어로,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면 분석적 교착어로 양분하였다.

Scheicher는 언어에 의미와 관계를 표시하는 두 요소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모든 언어는 이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된다고 믿었다. 따라서 기본의미 요소인 어근을 → R로, 어근에 병렬적으로 첨가되는 두번째의 독립적인 어근(영어의 blackbird에서 bird)을 → r로, 문법관계 요소인 접미사를 → s로, 접두사를 → p로, 삽입사를 → i로, 규칙적 변이형을 → x로 각각 표시한다면 그의 세 유형은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Goyvaerts 1975, 18f.)

1) 고립어 → R 또는 R+r

2) 교착어 → 분석적 교착어—Rs+r, pR+r 또는 Ri+r

종합적 교착어—Rs, Ri 또는 pR

3) 굴절어 → 분석적 굴절어— R^*s^x+r

종합적 굴절어— R^x, pR^x 또는 R^*s^x .

Morpurgo Davies(1975, 635)는 Schleicher가 그 당시 언어의 유형적 분류와 계통적 분류를 체계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소수의 학자중의 한 사람임을 강조하고 그가 계통상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두 언어가 유형적으로 서로 상이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Schleicher가 이러한 가정을 하게 된 까닭은 그가 유형적 분류는 구조에 의해서 그러나 계통적 분류는 음성대응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원칙을 올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가능성을 경험적 차원에서 배제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한 어족에 속하는 모든 개별어는 형태상의 구조에서도 일치한다. 따라서 모어의 분기는 형태구조의 진화가 이미 완료된 후에야 비로소 시작되어야 한다. 계통적 관계는 동일한 유형에 속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유형적 분류가 계통적 분류를 선행한다는 그의 주장은 원칙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를 둔다. 그는 두 분류유형의 이러한 순서적 배열의 정당성은 언어가 단순한 형태에서 보다 더 복잡한 형태로 진화하고 역사시대에는 발전을 하지 않고 쇠퇴한다는 두 명백한 사실에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진화 즉 언어형태의 발전은 위의 두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유사 이전에 완성되었음이 분명하다(Bynon 1986, 141f.).

19세기 유형론자들은 Adelung(1806-17)이 수집한 방대한 언어자료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어형에 관한 연구만을 중시했다. 그들은 진화론의 영향을 받고 사물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어형변화를 토대로 언어유형을 분류했다. 산스크리트와 회랍어를 중심으로 재구된 인구어 공통조어는 어미변화가 다양하고 풍부한데 비해서 현재 인구어의 어미변화가 매우 빈약하다는 사실에서 소수의 유형론자들은 굴절어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조적으로 간소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렇다면 중국어나 베트남어와 같은 고립어가 가장 발전된 언어단계다(Lehmann 1993, 37f.).⁵²⁾ 그러나 Marr는 이와 반대로 고립어를 가장 낮은 단계의 언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의 주장은 공산당이 중국정부를 장악했을 때 Stalin에 의해서 부인되었다.

Wundt는 Steinthal의 유형분류를 토대로(심리적 방법으로) 언어유형을 어근형, 교착형과 굴절형으로 분류했다 그는 언어유형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심리적 특성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초기에는 언어유형의 세 단계를 정신적 발전의 자연적 단계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면 이러한 세 단계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언어발전의 단계를 표시하며 또 한편 모든 단계에서 언어는 어떤 특정한 발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

52) Jespersen(n.d. 153-345, 381-466)은 현대영어가 고대영어보다 기능상으로 한층 더 우수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최소한도의 굴절어미를 가진 현대영어가 최고의 발전단계에 이르렀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단음절의 구조를 유효성의 유일한 판단기준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는데 풍부한 어근 또는 완벽한 문법구조에서 발전의 결과가 나타난다⁵³⁾ 예컨대 최저단계에 속하는 중국어가 가장 발전된 언어로 간주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335)

언어유형에 관한 연구는 19세기 역사-비교언어학의 전성기에는 팔목할 만한 주목을 끌지 못했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유형론이란 언어의 특성에 따라 언어를 분류하는 보편론인데 이러한 보편론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언어구조는 물론이고 언어와 문화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19세기 유형론자들은 언어와 민족간의 관계에만 지나친 관심을 표명했다 예컨대 Hegel철학의 영향을 받은 Schleicher는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미완성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은 인류사에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언어형성과 역사발전 과정은 어느 한 쪽이 중단하는 곳에서부터 다른 한쪽이 이어받는 인간의 정신적 행위이며 그것들은 동일한 발전단계로서 절대로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 Schleicher(1869, 35)는 그가 주장한 역사와 인간 사이의 발전관계를 드러내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영어의 경우에서와 같이 민족의 역사가 풍부하고 화려할 수록 그 민족의 언어는 형태상으로 쇠퇴한다는 역의 관계를 제시했다

20세기 초기에 Finck는 언어를 8 유형으로 분류했다 Spair(1921)는 형태론적 기준과 의미론적 기준을 토대로 언어유형을 분류했지만 그의 접근방법도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최근 Greenberg(1963)는 통사상의 기준을 중심으로 언어유형을 분류했는데 그의 이론은 언어변화를 고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의 보편론에서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세 기본요소로 구성된다.

4. 심리주의 언어철학

언어는 자연적인 대상과는 달리 문화의 산물로서 심리적 요인의 작용과 과정에 의해서 규정되는데 그 자체의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이중성 때문에 자연과학과 심리학의 연구대상

53) Wundt(1863)는 그가 초기에 주창했던 언어의 세 단계발전설(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335참조)을 약 40년 후에 부인했다(Wundt 1900 - 20, I, 600) 그는 만년에는 유형론에 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했으며 언어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포괄적 지식을 토대로 해서 그 언어의 유형을 확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예를 들면 중국어는 현재 고립어로 분류된다 그러나 중국어의 역사에 정통한 학자들은 중국어가 원시적인 어근어(고립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중국어에서 본래 존재했었으나 소멸된 형태구성의 흔적과 현재 일상통용어의 복합적 조어법에서 나타나는 경향 등을 보면 중국어가 이전에는 굴절어였음이 확정적이다 거의 고립어가 된 현대영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국어와 같이 고도의 관념적인 언어가 몇 천년 동안이나 원시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역시 믿을 수 없다(이 책의 독일어판 번역자인 Meier는 이 책의 저자 Amirova et al.이 Wundt 자신이 후에 부인한 언어의 세 단계발전설을 수록한 것은 러시아에서 Wundt에 관한 연구가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된다. 언어가 사회적 작업의 결과로 나타나고 그 발전이 여러 개인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언어는 문화의 산물로서 결국 사회학의 연구대상이 된다.

언어심리학의 연구대상에는 언어활동과 연관되는 정신적 과정의 분석뿐만 아니라 동적 언어체계 즉 언어체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법칙에 관한 연구도 포함된다.⁵⁴⁾ Humboldt, Steinthal, Lotze, Lazarus, Paul, Wundt 등 많은 학자들이 언어심리학에 관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이들의 이론은 상이하지만 언어철학으로의 중심적 과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방법론적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연구영역은 언어의 본질에 관한 문제와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 대별된다. 그들은 모두 문법과 논리학의 분리를 필수적으로 인정하였는데 그들의 이러한 견해는 논리적 법칙을 언어학분야에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다 물론 전자의 경우에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관한 문제제기 그 자체까지도 부인되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으나 그들의 관심사는 논리와 문법의 관계보다는 이것들간의 모순성을 규명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언어심리학자들은 논리법주와 문법법주 사이에 대응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언어자료를 수집하여 제시했다 (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321).

논리법주와 문법법주를 동일시했던 기존의 문법이론에 대한 비판, 개인의 관념과 연관되는 문제에 관한 깊은 관심 등이 또한 19세기 언어학과 일반적 보편문법의 전통과의 단절을 초래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 결과 언어분석 과정에서 심리적 분석이 주체가 되어 의도했던 언어분석의 목적이 퇴색되었지만 심리학적 연구방법이 언어연구 방법에 원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문법법주와 논리법주의 완전한 분리는 언어의 구체적이고 물리적 현상으로서 물리적-언어적 범주보다 불변하는 이상적-정신적 범주로서 언어의 우위성에 근본원인이 있는데 이러한 개념은 언어학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젊은이문법학과 시대 19세기 말경에 절정을 이루었다.

언어심리학자들은 언어를 개인적 정신활동의 특별한 기제로 취급했는데 그 결과 개인의 의식에 나타나는 관념의 기제로서 언어에 중심개념을 둔 문헌학적 개인주의에서 유래된 개인심리학적 연구방법과 민족정신의 특수현상으로서 언어에 토대를 둔 집단심리학적 연구방법이 확정되었다.

물론 언어의 심리학적 분석과정과 언어학적 분석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지만 점차적으로 이론과 방법론이 확립되어 심리학적 연구방법은 19세기 언어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심리학적 연구방법은 후기 젊은이문법학파가 언어의 자연과학적 연구방법을 지양하고 심리학적 연구방법을 수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

54) 심리주의란 또 한편 젊은이문법학파의 특수한 연구방법 특히 분석주의 Atomismus라고 부르는 연구방법을 일컫는다

서 심리학적 연구방법은 역사적 연구방법과 더불어 짧은이문법학과의 언어연구의 기본원칙을 형성한다 55)

철학과 논리학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심리학적 연구방법의 대두는 그 원인이 언어학과 심리학 그 자체에 이미 내포되어 있었다. 그 당시 언어학자들은 언어의 내적인 면 즉 내용과 의미에 관한 연구를 등한시 했기 때문에 심리학이 이 방면에 관한 연구를 보완했다. 그 반면에 심리학은 그 자체의 학문적 구성을 위해서 언어자료를 필요로 했다. 한편 언어학자와 심리학자 사이에 공통적 방법론을 정립하려는 공동노력이 없지 않았다. 56) 심리학자들은 언어를 사고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사고법칙에 관한 고찰을 중시했다. 따라서 그 당시 언어학자가 심리학자의 저서나 논문을 또는 그와 반대로 평가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겼으며 또한 상호연관되는 이론을 자기분야의 연구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었다. 언어학자들은 언어와 사고의 연관관계 예컨대 어린이 언어습득, 이중언어 사용과 언어혼합 등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했다. 그러나 가장 기대되었던 연구결과는 언어재구의 결과에서 심리학의 중심과제에 관한 해명을 얻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가정된 언어와 사고의 종속성을 토대로 모든 개체발생이 계층발생의 개괄을 명시한다는 발전사적인 가설의 역에서 언어발전(계통발생)에 관한 법칙의 발견이 사고법칙(개체발생)의 발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Maas 1973, 71)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었다.

19세기 후반기에 심리학적 개념이 역사-비교언어학의 연구방법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일정기간 동안 자연주의철학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개념은 연구영역이 상이하지만 역사-비교언어학의 테두리 안에서 구체적인 언어사실을 바탕으로 일반이론화의 작업에 상호보완적이었다. 예컨대 자연주의 언어철학의 체계개념과 언어체계의 발전과 기능의 기제에 관한 개념이 언어의 심리학적 연구 특히 민족심리학적 연구에 많은 기여를 했다(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320) 57)

언어학과 심리학간의 관련영역에 관한 연구결과(특히 Paul과 Wundt의 논쟁)를 분석해보면 심리주의가 역사-비교언어학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고 현재에도 심리학은

55) 짧은이문법학자들을 유추론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6) 언어가 인간의 심리적 활동의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언어학을 심리학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언어를 심리학적 방법에 의해서 연구하려는 왜곡된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Saussure 자신도 언어학을 심리학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시인했다. 최근 Chomsky 역시 언어학을 심리학의 하위분야라고 언급함으로써 Saussure와 비슷한 견해를 밝혔는데 실제로 심리학과 언어학을 분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57) 자연주의철학과 심리주의철학의 두 개념에서 모두 관찰의 대상은 언어 Sprache다. Humboldt에 의하면 언어는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니고 생성법칙에 의해서 규정되는 영원히 생성되는 것이지만 생성의 범위와 방법 역시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그는 언어와 언어행위 Sprechakt를 구별하였다. 이와 같이 과학적인 연구대상인 언어를 이론적으로 구분한 것은 언어학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통시언어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Humboldt에서 비롯되어 Steinthal, Wundt로 이어지는 심리언어학은 Humboldt의 이론을 근간으로 발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 언어학자들 특히 초기 젊은이문법학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젊은이문법학과 이전에 형성된 언어유기체설의 영향 때문에 청자와 화자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심리학적 방법은 젊은이문법학자들로부터 도외시 당했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그들의 실증주의적 언어연구 방법을 반영한다. 그러나 초기 젊은이문법학파의 실증주의적 언어연구 방법을 극복하고 언어연구(언어사)에 심리학적 개념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Wundt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는 언어자료가 심리학의 정립에 필요하다는 사실도 인식했다(Boretzky 1977, 34f.).

Humboldt의 언어이론에는 심리적 요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의 심리학적 이론은 보편적-인간적 이성과 정신을 근본으로 하는 보편적 차원의 심리주의다. 그러나 그의 이론에는 언어현상의 개인심리학적 해석과 인간의 개성과 개인정신의 요인을 중시하는 경향도 물론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개성적인 요인, 개인의식 속에서 개인적 발달과정의 역할, 개인의 정신현상과 의사소통 과정의 결합, 언어를 통한 주체관념의 객관화와 언어주체성의 객관화현상은 19세기 중반 이래로 언어학자와 언어와 사고의 기체에 관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자의 이론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 한편 Kant와 Humboldt에서 유래된 의식의 통합적이고 조직적인 기능으로서 사고가 “초인적 überpersonal”이라는 개념으로도 간주되었다. 의식의 기능 그 자체가 인간의 집합적 행동과 언어가 가장 중시되는 공동생활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조건하에서 사고의 “초인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명제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규정되는 정신적, 언어적 현상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관찰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또는 집합적 심리주의, 집합심리학, 민족심리학으로 지칭되는 심리학의 한 분야가 언어학의 연구영역으로 등장했다(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319f.).

19세기 후반에 심리학은 이미 정밀과학으로 정립되었고 Steinthal(1855)은 Herbart의 표상심리학⁵⁸⁾ 이론을 언어연구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Steinthal은 젊은이문법학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미 언어를 심리학의 연구대상으로 간주했다. 그에 의하면 언어는 발전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논리학이 아니고 심리학의 연구대상이다.⁵⁹⁾ 그는 언어연

58) Herbart는 인간의 사고는 어떤 외적 인상에 의해서 자극을 받으면 인간의 두뇌 속에서 무의식적 연합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나서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59) Steinthal은 Humboldt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므로 그의 대표적 저서인 *Grammatik, Logik und Psychologie, ihre Prinzipien und ihr Verhältnis zueinander*(1855)는 Humboldt의 내적 언어형식에 관한 해설서라고 불리웠다. 그러나 그는 Humboldt의 이론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심리화했다.

구에는 논리학 대신에 심리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존의 언어의 적 설명을 또 다른 언어외적 설명으로 대체했을 뿐이다. 그에 의해서 심리학은 철학과 역사의 원리론이 되었는데 그 때문에 또한 특수한 언어상의 범주를 파괴시키는 등 위험스런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러한 경향은 1900년 경 Husserl의 현상학의 영향으로 결국 퇴조되었다(Helbig 1973, 20).

Steinthal의 심리주의 언어철학은 Herbart의 민족심리학의 개념을 근간으로 한다. Herbart의 민족심리학의 기본원칙은 표상형성이 연합과 통각의 심리적 법칙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유도된다는 가설에 기초하는데 민족심리학의 창시자들 특히 Steinthal, Lazarus 등은 언어의 생성과정은 물론 언어의 발전법칙과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Herbart의 이론을 원용했다. 이와 같이 Herbart의 이론은 민족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되었다. 예컨대 그의 심리학은 개인정신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하는 데 반해서 Steinthal은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했다(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322).⁶⁰⁾

Steinthal에 의하면 언어는 민족심리학의 연구대상이며 민족심리학의 토대는 개인심리학이다. 그러나 공동체내에서는 특수한 심리적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민족심리학은 고유한 연구방법을 필요로 하며 그 연구목적은 여러 민족의 특별한 생활방식과 정신활동의 형태에 관한 본질을 규명하는 데 있다. 따라서 신화는 민족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민족정신은 우선적으로 언어에 나타나지만 역시 풍습, 관습, 제도, 행동양식, 전통과 성가 등에서도 발견된다. 민족심리학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총괄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모든 지적 행위가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민족심리학이 바로 언어학이라고 할 수 있다. Steinthal(1855)은 모든 언어에는 그 자체의 고유한 법칙에 의해서 발전하는 언어고유의 사고가 내재한다고 강조하고 문법적 사실을 심리적 관점에서 취급하는 동시에 또한 기존의 문법이론에 나타나는 Becker(1841)의 논리적 보편주의를 비판했다.⁶¹⁾ Steinthal은 모든 인류의 사고방식이 통일적이라는 Becker의 견해를 부인하고 모든 개별적인 개인의 특수한 논리에 상응하는 매우 다양한 사고유형이 존재함을 강조했다. 또 한편 Steinthal은 Schleicher의 자연주의적 언어관을 배격하고 언어를 동적인 언어연속체로 즉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발전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집단의 언어활동으로 간주했다.

Steinthal은 많은 논문과 저서를 집필했는데 그중 *Grammatik, Logik, Psychologie, ihre*

60) Herbart도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도외시한 것은 아니며 심리학이 인간과 공동체의 관계를 취급하지 않는다면 심리학은 편파적이고 불충분한 학문으로 존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Steinthal의 입장에서 볼 때 Herbart의 이러한 주장은 불충분하였다. Steinthal은 인간을 사회의 구성요인으로 간주했고 그 결과 개인이 아니고 인간사회 그 자체가 심리학의 연구대상이 되었다.

61) Steinthal은 단어와 개념간에는 물론이지만 문장과 판단 사이에도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고 문법범주와 논리범주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Prinzipien und ihr Verhältnis zueinander(1855)는 그의 대표작이다 그에 의하면 언어행위가 심리적 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언어학은 당연히 심리학에 속하며 인식과학으로서 언어학의 연구대상은 심리적 관찰의 대상으로서의 언어다. 그에게 언어는 의식적이고 내적인, 심적이고 정신적인 활동과 상태 그리고 연관관계(조음운동에 의한)의 표현이다 그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언어를 통일적 원칙에 바탕을 둔 심리적 체계로 정의했고 언어의 개별성과 통일성의 기본원칙이 바로 민족정신의 통일성과 특성이라고 강조했다

실험심리학⁶²⁾의 창시자인 Wundt는 Steinthal에 의해서 확립된 언어학의 심리적 접근방법을 다른 관점에서 발전시키고 심화시켰다. Wundt 역시 집단심리학의 토대 위에서 언어학에 접근했는데 그는 엄밀한 의미에서 언어학자라기보다는 심리학자였다 그는 학문을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으로 양분했는데 심리학은 그 자체에 두 학문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위치한다고 했다. 그의 언어철학은 일반적으로 심리학에 기초하는데 그에게는 심리학은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철학의 원칙론이 된다. 그 이유는 모든 학문적 인식은 경험적 원칙으로서 정신적 발전과정을 전제로 하는데 정신적 발전과정 그 자체가 심리학의 연구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의 지적 활동영역을 본질적으로 하위과정과 상위과정의 두 범주로 구분했는데 전자의 경우에 관념연합은 능동적 사고의 자료로 사용되며 정신적 요인의 연합적 결합은 수동적 인지상태의 조건하에서 실현된다. 후자의 경우는 통각현상을 말하는데 의식적인 정신의 발달과정과 관련된다(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321).

Wundt에 의하면 인류사회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개인 그 자체가 아니고 개인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민족심리학 또는 사회심리학은 큰 의의를 지닌다. 민족심리학의 연구대상이 인간의 공동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그중에서 언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는 언어현상에 정신적 활동은 물론이고 육체적 활동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언어는 인간의 심리적 활동을 통해서 실현되는 현상으로 인간의 사고, 감정과 소망의 표현(조음된 음성의 도움으로)으로 정의된다⁶³⁾ 따라서 언어가 표출운동에 속할 뿐만 아니라 표현에서 유도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Wundt 1900-20, I, 31) 그는 언어의 생성 역시 언어는 정신물리학적 생에 대한 표현의 특별한 발전형태라고 심리적으로 설명했다

Wundt는 본질적으로는 Steinthal과 Lazarus의 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사회심리학을 제

62) Wundt는 실험심리학의 연구방법을 *Grundzuge der physiologischen Psychologie*(1873-74)에서 자세히 논의했다 그는 언어, 언어의 본질, 언어기능과 언어발전에 관한 기계, 언어와 인간행위(특히 인간의 사고) 사이의 관계 등에 관한 연구를 처음으로 수행한 심리학자다

63) Wundt에 의하면 언어의 특성은 조음운동이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동기부여되었다는데 있다

계화했지만 그들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그 자신의 고유한 이론을 정립했다.⁶⁴⁾ 한 가지 부연할 사실은 Wundt가 민족심리학의 연구대상으로서 그들이 주창한 “민속정신 Volksgeist”의 개념을 부인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영혼 Seele”이라는 개념은 육체 또는 육체적 생활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야 하고 “정신 Geist”이라는 개념은 육체와는 무관한 의미를 지닌다.⁶⁵⁾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민족심리학의 연구대상은 “Volksgeist”가 아니라 “Volksseele”이다. 따라서 “Volksgeist”는 어떤 특정한 민족 또는 여러 민족특징의 특성서술을 일컫는다(ibid. 8)

Wundt는 우선적으로 민족심리학의 연구대상을 개인적 특성을 지닌 모든 것을 배제하고 공동생활에서 야기되는 심리적 법칙성에 한정했다 또 한편 그는 민족심리학으로부터 민족학, 인류학과 일반역사학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333). 그의 민족심리학은 정신이란 선験적으로 주어지거나 통계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의 내적 체험의 총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심리학은 언어학과 같이 법칙과학이 아니라 역사과학에 속하기 때문에 심리학에 일반적으로 유효한 법칙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발전법칙일 뿐이다 그의 이러한 개념이 젊은이문법학자들의 것과 유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이 그들의 연구영역을 초월한 것은 그의 언어연구 방법이 집단심리학인 민족심리학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정신은 본래 개인에게만 속하고 경험적 고찰방법도 개인에게만 적용될 수 있지만 개인 상호교신의 필요성 때문에 한 민족(한 언어공동체)내에 수많은 공통성이 필연적으로 형성됨으로써 결국 추상적인 총체정신이라는 개념을 추출할 수도 있다. 언어변화가 화자 개인으로부터 야기되고 개인적 특성만을 갖는다면 그러한 언어변화는 결코 어느 한 언어공동체내에서도 수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Boretzky 1977, 35)⁶⁶⁾

Wundt에 의하면 언어변화는 정신물리학적 요인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며 순수한 물리적 요인이나 언어혼합을 통해서 설명될 수 없다 그는 유추현상을 문법적 유추와 의미적 유추로 구별함으로써 젊은이문법학자들과 다르게 취급했다. 그는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언어를 개념과 표출운동의 정신적 영역에 소속시킴으로써 언어고찰에 새로운 방법 즉 총체적 개념, 의미론의 통각적 개념 등을 도입했다 그 외에 그의 언어의 심리적 해석에서

64) Steintal과 Lazarus에 의하면 민족심리학은 개인심리학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양자는 일반심리학의 통합적 구성요소를 형성한다

65) 그 당시 경험심리학에서 이와 유사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영혼은 정신적 행위의 실제적 결합으로 이해된다 Wundt는 경험적 고찰을 위해서 불필요한 영혼의 형이상학적 개념과 이러한 개념과 관련되는 법칙의 허구를 제거한다면 영혼은 의식의 직접적인 사실 즉 정신적 과정의 결합을 의미하고 정신적 법칙은 정신적 과정에서 확증된 법칙성을 말한다 따라서 민족의 영혼은 개인의 영혼과 같이 심리학의 연구대상이다

66) 이러한 사실은 어느 한 언어공동체내에 속하는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전제조건이 주어졌을 때에만 가능하다